

정읍 태인면 신규 산단 2028년 착공

108만 3000㎡ 부지 일반산단 지정 고시...총 사업비 2147억 투입
태인IC·국도 인접 교통 접근성↑...인근 산단 연계 쉬워 시너지 기대

정읍시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읍시는 태인면 일원 108만 3000㎡ 부지가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태인 신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료하고 태인

면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수요입증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 심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에 지정된 산업단지는 국비 6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47억원을 들여 조성되고 산업시설 면적은 65만 1000㎡다.
새롭게 조성될 태인산단은 태인IC와 국도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 산업단지·농

공단지와의 연계가 쉬워 기업 간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향후 시는 산업단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개발계획 용역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7년까지 모든 인허가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은 투자유치와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요소"라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민선 8기 공약 이행 87%...59개 사업 완료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이행 사업 문제점 분석·대안 논의

고창군의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이 9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공약이행률이 86.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고창군청에서는 심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가 열렸다. 부진사업에 대해 문제점 분석과 대안이 논의되는 등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선 8기 고창군 공약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사업이다. 17개 사업은 완료됐다. 42개 사업은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분류돼 총 59개 사업이 완료됐다.
완료된 사업만 73.75%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이행을 평가방식에 따라 추진 중인 21개 사업을 50%씩 완료한 것이다. 셈하면 총 이행률은 86.87%가 된다.
완료된 주요 공약사업은 ▲고창읍성 한옥·민속마을 조성 ▲교통약자 1000원 택시 운행 확대 ▲정소년 문화공간 확충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설치 ▲저장년 농림축수산업 가업승계 활성화 등이다.



지난 16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심덕섭 고창군수가 일부 부진한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담당 부서장에게 묻고 있다. <고창군 제공>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공약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은 ▲소상공인 용자 지원 확대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 우대 ▲관광코스 개발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고창군 초·중·고 졸업 대학생 등록금 등 지급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사업 ▲농기계구입지원 확대 및 첨단농기계 확충 등이다.

또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고창군 파크골프장 확충사업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성 공약사업 등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한 후 차근차근 정상 추진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체계적인 공약관리와 점검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군정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의료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수행

신규 기관 선정...정신건강 치료·상담 서비스 연계 재시도 예방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 서비스로 연계해 재시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의료와 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개입·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원의료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응급처치

뿐 아니라 초기상담, 정신과적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지역 및 권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최소 1개월 이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병원 내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 인력을 배치했다.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응급실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췄다.

이번 선정은 전북도와 남원의료원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한 결과다. 도는 앞으로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4곳이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며, 지난해 1152명의 자살시도자가 이들 병원 응급실을 통해 치료·관리를 받았다.
남원의료원이 새로 참여함으로써 도내 5개 기관이 자살시도자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갯벌 해치는 오프로드 행사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모래사장서 150여대 질주, 생태계 피해”

전북 환경단체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인근에서 개최 중인 오프로드 주행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세계자연유산 인접 해안에서 오프로드 차량 주행 행사가 열린다”며 “갯벌 기능을 훼손하고 관리 지점을 위반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창에서는 지난 2일 시작한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 행사가 22일까지 열린다.

문제는 17일부터 3일간 축전 행사 구역 내 동호명사십리 해변에서 '오버랜딩 대축제 in 고창' 행사도 진행된다는 점이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이 행사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단체는 “갯벌과 맞닿은 모래사장에서 150여대의 사륜구동 차량이 질주하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유산 보존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내장산국립공원, 단풍철 무료 셔틀 운행

25일~11월 16일 제4주차장(내장호주차장)~월령교 2.1km 구간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한정동)가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 내장산에 매년 가을철 탐방객이 집중됨에 따라 차량 정체 해소와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구간은 제4주차장(내장호주차장)~월령교 구간(2.1km)이다.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말 등 탐방객 집중 시기에 중점 운행

된다. 오전 9시(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내장산 방문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대중 교통과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착한 소비’로 저소득층 자립 응원

자활생산품·반려동물 시·군 순회장터 시민 ‘성향’



'2025년 자활생산품 및 반려동물 시·군 순회장터'가 지난 16일 정읍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응원하는 '2025년 자활생산품 및 반려동물 시·군 순회장터'가 지난 16일 정읍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고, 도내 6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과 자활기업들이 참여해 각자의 맘과 노력이 담긴 우수 생산품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넓히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장터 현장에는 생활용품과 패브릭 공예품 같은 수제품은 물론, 누룽지·생선구이·베이커리 등 먹거리까지 다채로운 상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수제 간식과 습식사료 등 펫용품이 처음 선보이며 새로운

소비층의 관심을 모았다.
정읍지역자활센터도 특색 있는 상품으로 힘을 보탰다.
카페보네사업단은 신메뉴 '쌍화차'를 선보였고 영농사업단은 갯 수확한 상추를 내놓았다. 세차사업단은 세차 할인권으로 실속형 상품을 준비했으며 자활기업 샘골식품가공센터의 백미 누룽지는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장터를 통해 자활생산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상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라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정읍 지역경제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